해남군, 농촌 인력난 ‘숨통’ 트였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내 최대 294명 배정

작년 인원보다 2배 많아…‘세심한 관리 체계’ 효과

해남군은 전남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로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올 하반기 전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한시름을 덜게 됐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법무부 배정 심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141명의 2배가 넘는 인원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에는 총 2천335명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해남군에는 올 상반기에도 총 2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으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상 국가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근로자 선발은 물론 입국 후 사후 관리까지 세심한 관리 체계를 갖춰 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입국자 중 12명은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가 재입국해 기존 농가에 배치될 정도로 농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가족, 친척이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 정착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까지 50명이 입국하는 등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남군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 최대 8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3-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농가와 근로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날로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 및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군이 지역 농수산물인 꽃게, 건해산물, 곱창김 등의 호주 수출에 앞서 청사 앞에서 수출 기념 선적식을 가졌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농수산물 호주 첫 수출길

꽃게·곱창김·젓갈류 등 5만달러 가량 한인마트에 납품

진도 농수산물이 호주 수출길에 오르면서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진도 꽃게,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진도쌀 등 5t(5만달러)가량의 농수산물이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된 진도 농수산물은 호주 한인마트 등에 납품돼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품목과 물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 통합 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농수산유통사업단을 지난 1월 신설,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진도군청 청사 앞에서 이달초 열린 선적식에는 김희수 군수,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리챠드 김 ㈜마이홈푸드 대표, 김기영 진도군수협장, 강성민 서진도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수 군수는 “최근 K-푸드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목포경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호응

2018년 8월부터 시행…교육·1대1 상담 등 진행

“경찰관들이 섬까지 직접 찾아와서 많은 것을 알려주니 너무 고마워요.”

목포경찰서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 섬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호평받고 있다.

7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사진〉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목포경찰서 자체 시책으로 주민을 찾아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상담을 위해 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목포시여성상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해 각종 범죄(성폭력,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1대1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준영 경찰서장 부임 이후에는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목포경찰이 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횟수를 대폭 늘렸다.

기존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월 1회 운영되던 것에서 여성청소년과 주관은 월 2회, 도서파출소 주관으로 월 4회 실시하는 등 올해는 도서지역 마을 경로당 186개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목포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지속 추진하며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동상담소를 찾은 섬 주민들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전화를 바로 끊어야겠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 도로 주변을 다닐 때는 특히 조심하겠다”, “파출소 경찰관들도 마을에 자주 오고 여기서 먼 경찰서에서도 마을에 와주니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살피겠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보건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관내 음식점에 세정제 등 지원…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확대

함평군 보건소는 7일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위생적이고 선진화 된 음식 문화를 정착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실시하는 문화 운동이다.

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정제, 위생모 등 7개 품목의 위생물품을 지원했다. 〈사진〉

또 모범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를 대상으로 살균수저통과 일회용 앞치마, 위생마스크, 소형찬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업소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소별 위생등급제를 확대 지정해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명희 함평보건소장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영광군의회, 경남 통영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각 테마 어린이도서관·청년창업지원센터 견학

영광군의회는 “김한균 부의장, 장영진 운영위원장,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 임영민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창업 지원·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틀에 걸쳐 경남 통영시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꿈이랑도서관은 전국 최초 미각을 테마로 한 어린이도서관으로, 1층에 일반도서·미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2층에는 미각 전시실과 강의실, 요리실습실을 배치해 방문객에게 만족도 높은 미각 관련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날은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을 방문해 통영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과정·문제점, 리스타트플랫폼 내부 시설·입주 기업들의 운영 현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한균 영광군의회 부의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해 청년 인구가 돌아오게 해 궁극적으로 젊고 활기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감성돔·점농어 종자 42만마리 방류

홀통·월두·구로항서…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무안군은 “최근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위해 현경면 홀통·월두항, 청계면 구로항 등 3개소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28만3천마리와 점농어 종자 14만4천마리를 방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감성돔과 점농어는 지역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특성에 잘 어우러지는 품종으로 감성돔의 경우 봄·가을철, 점농어는 여름철 어업인의 주 어획 품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낚시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고급 어종이다.

군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감성돔, 점농어, 갑오징어 등 총 6천515만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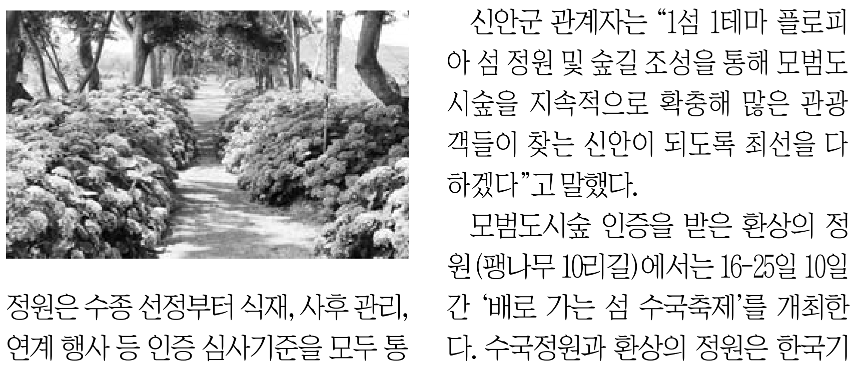
또 무안군 대표 수산물인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한 낙지 목장 4개소와 낙지 산란장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번 낙지 금어기(6월21일-7월20일)에 맞춰 교미 낙지와 어미 낙지 2만5천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기후 변화, 해양 오염, 남획 등으로 갈수록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 종자를 지속 방류해 풍요로운 어장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신안군 도초 ‘환상의 정원’ 산림청 인증 ‘모범도시숲’

16-25일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 개최

신안군 도초 ‘환상의 정원’(사진)이 산림청 인증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됐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이 지난해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한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문 인증을 받아 최근 산림청장 인증 현판을 도시숲 내 설치했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모범도시숲 가로수 부분의 환상의 정원은 수종 선정부터 식재, 사후 관리, 연계 행사 등 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초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국축제와 환상의 정원을 가꾸는 자원봉사단체 및 주민 참여 활동 등이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1섬 1테마 플로피아 섬 정원 및 숲길 조성을 통해 모범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범도시숲 인증을 받은 환상의 정원(팽나무 10리길)에서는 16-25일 10일간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 면적(ha) 당 전국 최다 수국 식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다. /신안=양훈 기자

CMYK